

발효식품엑스포, 비대면으로 변경

전북도-생진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온라인 e-엑스포'로 내달부터 12월까지 내달 6일부터 우체국 쇼펍몰에서 도내 우수제품 판매·9월 위메프 등 통해 판촉

올해로 18회를 맞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인 '온라인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변경해 오는 8월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가 밀착 접촉하게 되는 행사의 특성상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도는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기업, 행정,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온라인 e-엑스포로 전환했다. 따라서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온라인상에서 도내 250여개 식품기업의 우수 제품들의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영세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 구매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아직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기업들이 많다. 이에 전북도와 생진원에서는 '온라인 첫걸음 레밸업사업'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뛰어드는 초보기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생진원은 역량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지원과 함께 신규 채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사전 인프라 지원인 'e-채널 다변화 지원사업'을 통해 판로 다변화가 절실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한, 해외 수출을 위한 현장 B2B 수출상담회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해외바이어의 국내 입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외바이어, 통역, 기업까지 한자리에

온라인상으로 모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화상상담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농식품산업과 강해원 과장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 17년간 전라북도 농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비록 올해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지만 e-발효식품엑스포 개최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농식품기업의 판로개척 강화 및 매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그동안 엑스포는 단순 전시·판매장이 아니라 전북도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박람회였다"며 "온라인으로 변화되지만 단순하게 판매만

지원하는 온라인 엑스포가 아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 중이므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8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8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e-엑스포로 열린다. 오는 8월 6일부터는 우체국 쇼펍몰에서 다양한 전북도 우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우체국쇼펍몰, 위메프, 11번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북 우수제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엑스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사계절하우스 파프리카 수확

27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계절하우스에서 연구원들이 시설에서 처음 열린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사계절하우스는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채소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은 광복형하우스로 다양한 병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학습에 집중할수 있는 깔끔한 분위기 조성

전북은행, 불안에 'JB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4일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다니엘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07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조인성 부안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다니엘지역아동센터 김경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09년 개소한 다니엘지역아동센터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안읍내에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음식점이었던 현재 센터공간을 센터 자체적으로 환경개선하기 어려워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센터내부 전체에 도배를 하고 오래된 책상, 의자 등을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해 학습에 집중할수 있는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센터외부에는 아동들이 센터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양막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은행 부안지점(지점장 조인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은 "아동들이 공부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파프리카 고온기 맞춤형 기술 투입해야'

전북농업기술원 "32℃ 이상일 경우 개화·착과에서 큰 영향"

파프리카는 수출 효자작목으로 수출 물량 3만5,250톤, 수출액은 9,124만 4,000\$ (KATI, 2019년)로 생산량의 45%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여름재배 생산지는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인 고령지 남원 운봉지역과 강원도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파프리카의 경우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가 30℃ 이상이 되면 착과가 지연되고, 32℃ 이상일 경우 개화와 착과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생산량이 감소됨으로 고온기 여름재배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

다. 시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차광(스크린 또는 차광재 도포), 환기, 포그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시설내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또한, 근권온도 관리를 위한 고온기에는 소량 다회 급액 방식으로 뿌리부근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으며, 지나친 하엽제거는 그늘을 제거하여 근권부 온도상승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온기 측지에 착과 시킬 경우 기형과 발생이 높으므로 주의 착과를 유도

하고, 과실이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잎소과 등이 발생하여 품질이 떨어진다. 또한, 수확을 지주하여(주 2회 이상) 폭염과 고온에 과일의 노출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온기에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배꼽쪽을 과도 많이 발생되므로 충분한 수분 흡수를 위해서 EC농도를 다소 낮춰 관리해야 한다.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과 박종숙 박사는 여름철 파프리카 재배에서 환경관리가 과일의 품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는 시설내 온도관리와 특별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장애인 인권 향상 복지 증진 노력 '인정' 국민연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서 대통령 표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7월에 진행됐다.

공단은 작년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장애인 서비스 종합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장



애인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늘어났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수도 5,926명 증가했다. 개편 전에는 장애등급 제한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던 경증장애인도 2020년 3월까지 1천 246명이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혜택을 받게 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됐다.

또한 공단은 장애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별도전용을 운영한 결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보다 높은 3.72%를 달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대받거나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과 복지서비

스를 연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 119' 사업을 진행해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공단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연극, 평창올림픽 관람 등 공단 임직원이 함께하는 장애인 공가여행을 29회 실시해 총 1천 837명에게 다양한 테마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장애인들로 구성된 어깨동무 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냈다. 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1인 1나눔' 계좌 후원을 통해 76명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을 돕기도 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소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는 27일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서곡에 위치한 가정식요리 맛집 '이지트'를 찾아 백종원식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출동'

백년가게 전북협의회, 전주 서곡 맛집 '이지트' 찾아 멘토링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회장 김태정)는 27일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서곡에 위치한 가정식요리 맛집 '이지트'를 찾아 백종원식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

제1차 멘토링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이지트'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가정식요리 음식점으로 대표메뉴인 묵은지닭볶음탕, 옷닭 백숙은 한 번 올랐던 손님이 지인과 함께 재방문할 정도로 입소문이 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소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부족한 홍보 경험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프로보노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백종원식 맞춤형 멘토링은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의 첫번째 활동으로, 멘토로 참여한 백년가게 대표가 오랜기간 동안 점포를 운영해오면서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문제해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대표메뉴 품평회를 통해 메뉴구성과 레시피에 대한 토론과 의견공유도 이뤄졌다.

또한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경제성장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점포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멘토링 활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를 통해 영상과 카드뉴스로 편집해 중소벤처기업부 SNS, 네이버 경제M판 등에 업로드되며 소상공인방송에도 송출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프로보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로봉사라는 뜻으로 오늘 백종원식 맞춤형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와 기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성공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라며, "전북중기청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이 잘 정착해 앞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백년가게 전북지역 협의회 등 참여기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백년가게와 전북중기청은 포함한 도내 유관기관은 지난 8일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표자가 협약하겠다는 다짐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재래 흑염소' 산업적 활용도 높인다

농진청, 30마리 지자체 축산연구기관에 무상 분양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토종 유전자원으로 수집·보존해 온 재래 흑염소 30마리를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분양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8일부터 전북, 전남, 충청남도 3개 축산연구기관에 재래 흑염소 3계통(당진·장수·통영)을 각각 수염소 2마리, 암염소 8마리씩 분양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족유전자원센터는 1990년대 후반 사라질 위기에 있던 국내 재래 흑염소 유전자원을 수집해 다른 종과 교잡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관리해 왔다. 재래 흑염소 유전자원 중 장수계통은 전북 장수군 번안면 지역, 당진계통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 통영계통은 경남 통영군 목지도 지역에서 수집했다.

재래 흑염소 3계통은 오랜 기간 등

안 국내 기후와 지형에 적응해 온 고유 품종으로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가족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돼 있다.

전북 축산시험장, 전남 축산연구소, 충남 축산기술연구소는 분양받은 재래 흑염소의 순수 혈통을 증식·보존하고 외국 품종과의 교배를 통해 고기 생산성과 성장이 우수한 염소 품종 개발 연구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재래 흑염소와 후대 개체의 이력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해 염소 등록 제도와 등록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족유전자원센터는 축산연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래 흑염소를 지속적으로 분양하고 대량 증식과 보존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농협사료 균산바이오, 3차 생균제 중국 수출

7톤 물량 출고 기념식... 가족질병 예방·농가소득 증진 노력

농협사료(대표이사 안병우)는 27일 균산바이오공장에서 2020년도 3차 생균제 중국수출 물량(7톤)을 출고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생균제 시장은 면역력 증진을 위한 항생제 대체제 및 소비자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중국 현지 제품들이 치열한 품질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균산바이오는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으로 인한 축산시장의 위축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팬데믹에 따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3차(7톤) 중국 수출을 이어나가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2차례 수출도 계획돼 있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항 중이다.

균산바이오 김종철 장장은 "순탄치 않은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며, "신제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좋은 생균제를 공급함으로써 가족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진과 더불어 축산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